

“학생들에게 받은 고마움 되돌려줬을 뿐이죠”

●김승철 (전제재도서 광주지사 대표)

37년간 교육사업...15년째 동구 드림스타트에 참고서 기부
동구, 최근 감사패 수여...2022년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학생들 덕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되돌려줬을 뿐입니다.”

김승철(66) (전제재도서 광주지사 대표)은 37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이어오면서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 15년째 동구 드림스타트에 참고서를 기부하고 있다.

김대표는 4월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학생들 덕분이라며 “그 고마움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시작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지난달 19일에도 동구 드림스타트에 참고서 538권을 기부했으며 동구는 15년간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같은 달 2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대표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배움에 전념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왔는데, 감사하게도 상까지 받게 돼 쉼없이 따름”이라며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기부하는 참고서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비쳤다. 15년 전과 최근 기부한 참고서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약 20%가 감소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대표는 “기부하는 책 권수가 줄어드는 것



광주 동구가 지난달 28일 15년간 동구 드림스타트에 참고서를 기부해온 김승철(오른쪽) (전제재도서 광주지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을 제할 때마다 씩씩한 기분이 든다”며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

다”고 전했다. 이어 “힘 닿는 데까지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표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워싱턴에 살고 있는 호남인 2·3 세대가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워싱턴 호남향우회에 한국어 교재 500여권을 기부했다.

김대표는 “먼 타지에서까지 우리 호남의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워싱턴 호남향우회의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마침 워싱턴에 거주하는 2·3세대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보냈다.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체가 기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대표는 이 같은 기부·봉사정신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어린이날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은정기자



동신대,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성료

동신대학교는 4일 “대학 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입생은 학부생 1천386명, 대학원생 408명 등 총 1천794명이며 입학식에서 상무대 근무 지원단 군악대의 연주와 구성원들의 환호 속에 입장해 총장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신입생 선서를 했다. 동신대는 MZ세대 취향에 맞는 환영 행사를 위해 격식을 탈피하고 공연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입학식을 준비해 호응을 얻었다.

동신대 교수들과 이주희 총장이 환영의 마음을 담은 공연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입학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동신대학교의 인재이자 지역 인재로 성장할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나를 키워주는 대학,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꾼다, 지역과 상생하는 공영대학, 네 가지가 신입생들을 성장시켜 줄 대학의 모토”라며 “신입생들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지역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민 가독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자



목포세무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표창장 등 수여

목포세무서는 4일 “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수상자, 유관단체, 목포세무서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명)와 세정협조자 1명에게 표창장(기획재정부 장관상 1명, 국세청장상 1명 포함)을 수여했다.

또 유공 공무원 1명과 30년 장기근속 직원 7명, 20년 장기근속 직원 3명에게 1일 명예세무서장이 표창장과 기념패를 전수해 그 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철재 목포세무서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관내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올해는 경기 악화로 세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 지원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대출금리와 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세정·사회적 우대 혜택이 수상 훈격별로 일정 기간 제공된다. /목포=정혜선기자



광주 북부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신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기관 합동 캠페인 을 펼쳤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북구 대서초등학교 일대에서 북구청, 동부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1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30km 미만 서행운전 ▲신호준수 ▲과속금지 ▲불

법 주·정차 금지 등을 안내, 홍보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유중운전·보행자 보호 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재영기자

31사단, 2024년 예비군훈련 준비사열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최근 광주 광산·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사단장 주관 ‘2024년 예비군훈련 준비사열’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주요 참모, 훈련대교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사열은 단순 장비 점검을 넘어 예비군이 교장에 도착해서 훈련대로 넘어가는 인도인접부터 각 교장, 안보교육관, 예비군 식당 등 시설은 물론 교육체계를 최종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단은 시가지 전투교장에서 마일즈 기반의 교전훈련 장비를 활용한 쌍방향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작전 환경에 맞춘 예비군 훈련을 시연했으며 편의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 상태 철저히 점검했다.



이일용 31사단장은 “현역자원 감소에 따라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지역 방위작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 정예 예비군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영기자

광주여대, 기보배 선수 스포츠학과 교수 임용

광주여자대학교는 4일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가 지난 1일 모교인 광주여대 스포츠학과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광주여대는 2000년 양궁부 창단 이후 기보배-최미선-안산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함으로써 한국 여자 양궁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글로벌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스포츠학과를 신설했다.

기보배 교수는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출신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2관왕, 2016년 리우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아시아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내외 무대에서 획득한 금메달 개수가 9개에 달하는 한국 양궁의 전설이다. 또한 지난 2022년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 강단에서 양궁 교과목의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지난



해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교인 광주여대 스포츠학과 교수로 임용돼 양궁의 대중화와 후학 양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기보배 교수는 “모교인 광주여대 스포츠학과 교수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양궁의 대중화와 후학 양성을 통해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김진호 조선대병원장 취임



조선대학교병원 제25대 병원장에 김진호(64·사진) 신경과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4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김진호 신임 병원장은 신경과 전문의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대병원에서 신경과장, 기획실장, 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파킨슨병의 발생·진행 등에 관한 기초 연구 부문에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신경과학회, 뇌졸중학회, 임상신경생리학회 등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호 병원장은 “의료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직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내실을 다지고 숙원사업이었던 병원 신축을 통해 지역민에게 최첨단 의료 시설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원장에는 병원 기획실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윤성호 호흡기내과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지난 1일자로 ▲기획실장-최지윤 이비인후과 교수 ▲진료부장 김동휘 정형외과 교수 ▲교육연구부장 박상근 중앙혈액내과 교수 ▲대의협력실장 김유석 외과 교수 ▲의료질관리실장 흥란 병리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기수희기자

김태환 목포해양수산청장 취임



“연안 해상교통 핵심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김태환(55·사진) 전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31대 청장으로 4일 취임했다.

김 청장은 광주 인성고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금융정보 분석원 심사관으로 공직에 입문(7급 공채)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소득복지과, 항만보안 개선TF 팀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운·항만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어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장을 거쳐 여수해수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전국 여객 운송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연안 해상교통 핵심기관의 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적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이희완 보건부 차관, 광주보훈병원 방문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최근 광주보훈병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 현안 논의 및 시설을 점검했다.

4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이희완 차관 등이 병원을 방문, 이삼용 병원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현황 보고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응급실 등 시설을 점검했으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광주보훈병원은 “보훈부에서 구상한 비상진료대책본부와의 협조를 통해 ▲위탁병원 및 타 진료과의 연계 진료 ▲전담간호사 등 가용 인력 활용 ▲병동 근무간호사 및 전문의 당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상황 대응계획을 수립,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차관은 “국가 전체적인 진료 공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수희기자

부음

▲임명현씨 별세, 나세홍(광주시교육청 대변인)씨 모친상=발인 5일(화) 오전 8시 광주 기독교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653-4400).